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주축이 되어 뇌졸중 MRI 국가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뇌MR영상 국가참조표준센터'(동국대 일산캠퍼스 의학관 2층) 센터장 김동억교수(신경과는 뇌졸중 예방과 치료를 손쉽게 해줄 한국인 맞춤형 뇌MR영상 참조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뇌졸중 MRI 국가표준 제정 사업은 동국대학교병원이 주관이 되어 분당 서울대병원을 포함하여 전국 11개 병원이 협력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급성 뇌경색으로 입원하는 모든 환자의 MRI와 환자 당 700 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임상정보를 수집 /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1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센터에서 수집한 환자의 영상/임상 정보 데이터는 약 9,200여명분에 달하며, 엄정한 등급부여심사 및 등록절차를 거쳐 50건의 한국인 뇌졸중 뇌MR영상 표준자료를 등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출처: 국가참조표준 홈페이지(db.srd.re.kr). 김동억센터장은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인 뇌MR영상 참조표준이 확보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인 뇌졸중 뇌지도가 만들어지면, 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내용은 이슈메이커 4월호에 특집기사로 소개되었다.

02 성공적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2주기 의료기관 인증 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3일 17시 5층 대강당에서 2주기 의료기관 인증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이진호 의료원장, 채석래 병원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환자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을 교직원들이 공유하는 자리였다. 격려사, 위촉장 수여, 배지 착용, 결의문 낭독, 구호 세레모니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함께 하는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의 구호



세레모니에서는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2주기 인증 이 될 것을 확인했다.

이진호 의료원장은 “지난 4년 동안 해온 모든 일을 재점검하고, 더욱 강화된 2주기 인증기준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다면 다가오는 4년은 병원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의료 질 향상이 병원 전체로 확산되어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3 '건강한 내일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합천 해인사 승가의료봉사 다녀와

교직원불자회 연우회(회장 성낙진)는 4월 5일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양 · 한방진료, 물리치료 및 수액요법 등의 의료 봉사를 시행했다

봉사활동에는 법사스님, 성낙진 연우회장, 한방 침구과 이승덕 교수, 연우회 임원과 회원 30명이 함께 하여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70명의 사중스님, 학인스님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였다.

연우회는 앞으로도 의료자비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건강한 내일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04 정보사, 본원 저소득 가정 환자 2명 치료비로 4백만원 기부

대구에 소재한 대한불교조계종 정보사(주지 정호스님)에서 뇌손상으로 장기적인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두 가정의 환아를 위하여 4백만원을 기탁하였다. 정보사에서 보내온 4백만원은 자녀를 잃은 한 신도의 백일기도 회향과 주지스님의 보시로 모아진 성금이라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본원 사회사업실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과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소득 환우돕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회사업실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레터 100호 기념 축하 메시지

2012년 4월 30일 희망을 전달하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뉴스레터로 창간하여
2014년 4월 7일 100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밝고 건강하고 좋은 소식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100회 축하합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세상의 모든 환우와 가족분들께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동국대학교 76학번 _ 방송인 김 종 석



벌써 100호가 발행되었군요!

뉴스레터를 보면서 모교병원의 발전된 모습을 접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병원의 좋은 소식 많이 알려주시고 더욱 알차고 풍부한 뉴스레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00호 발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국대학교 병원 교 · 직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동국대학교 82학번 _ 영화배우 최 민 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뉴스레터 100회 축하드립니다. 짹짹!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다 전할 수 있는 좋은 뉴스레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그맨 엄 경 환



100호 발행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 동안 병원 곳곳의 소식으로 소통하느라 고생한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병원의 성장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봐주신 지역민과 내원객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뉴스레터 슬로건인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처럼 뉴스레터가 행복한 이야기로 더욱 많이 채워지길 기원합니다.

“무한지력 동대병원”, “일등친절 동대병원”, “인화단결 동대병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_ 이 진 호



뉴스레터 100호 발행을 맞이하여 진심을 담아 축하를 보냅니다. 일주일 동안 뉴스레터를 통해 크고 작은 소식들을 함께 나누며 그 안에서 소통하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생동감 있는 알찬 소식과 다양하고 폭넓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소중한 매체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장 _ 채 석 래



아침에 문득 편지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팔아이에게 보낸 아흔 번째 편지, 멀리 다른 대학을 다니던 절친한 벗에게 4년간 보내었던 80여 통의 편지, 그리로 어떤 여학생에게 보냈던 절절하였던 몇 통의 편지, 그러나 우리병원의 뉴스레터처럼 100번을 헤아리는 것은 많지 않더군요. 애써 우리직원들 기억합니다. 100회는 우리 모두의 기대와 열정이 가진 영속성의 증명인 것이지요. 자랑스럽고, 또한 고맙습니다.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장 _ 김 동 일



뉴스레터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월요일 오전을 기다립니다. 왜 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날이 알차지는 뉴스레터를 보면서, 뉴스레터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는 것이 좋아서입니다. 앞으로도 매주 매주 모든 분이 기다리는 뉴스레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환우와 교직원의 눈과 귀가 되어 병원 대 · 내외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산행정처장 _ 김 민 호

알 리 미

한지공예품전시 기간 : 4월 7일(월) ~ 4월 20일(일) | 장소 : 1층 로비

서구보건소 건강강좌 일시 : 4월 9일(수) 10:00~11:00 | 장소 : 서구보건소

강사 : 한방여성학과 최민선 교수 | 주제 : 중장년층의 건강관리와 한방

암환자를 위한 미술활동프로그램

일시 : 4월 9일(수) 10:30 (매주 수요일 시행) | 장소 : 지하1층 방사선종양학과 회의실

